

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1	'26.5.26.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5	1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백강희 부위원장,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조정현 위원, 박지현 위원, 김혜영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9	7	-	-	16	-	16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6	-	-	1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지방선거 관련 보도> 지방선거 보도를 할 때 정칙권 중심의 발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시청자들 입장에서 후보 자체 또는 공약에 대한 검증을 다루는 원칙이 있었으면 함. 선거 보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해주길 바람.	기존 지방선거 보도 외 유권자 중심으로 공약을 검증하는 기획보도 '유권자의 힘으로'를 기획해 5.12일부터 주요 선거구별로 마련해 방송함 <26. 5월 조치>	'26.4월
보도	<법원 판결 관련 보도> 법원 판결 보도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의 사과의 다르게 해시태그가 단편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되는 점이 아쉬움	법원 판결 보도 유튜브 업로드 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 주장 등을 보다 충실히 담은 해시태그를 사용하도록 반영함 <26. 5월 조치>	'26.4월
보도	<시시각각 세트 관련> 딱딱하고 어두운 느낌에서 편안하고 세련된 자리배치 등의 노력이 느껴짐. 다만 카메라 줌인을 했을 때 진행자 머리가 참문에 걸리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음.	5월 7일부터 개편된 뉴스센터 세트에서 <시시각각>을 진행해서 지적인 문제점을 해소함. <26. 5월 조치>	'26.4월
보도	<홈페이지 코너 관련> MBC뉴스 '정정 및 반론 보도 모음' 코너에 '많이 본 뉴스'와 '최신 뉴스'가 함께 있는데 이걸 '정정 및 반론 보도'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구분하는 게 필요해 보임	MBC뉴스 홈페이지의 '정정 및 반론 보도'와 함께 노출되는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등을 삭제 조치함. <26. 5월 조치>	'26.4월
보도 (시청자 불만)	<토론회 방송사고 후속조치 관련>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한 편파 방송이라는 불만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의견 (5/22-24, 총 25건)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조치사항> 1. 보도국장 경질 (5/22) 2. 뉴스데스크 시작시 앵커멘트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5/22) 3. 뉴스데스크에 사고개요 및 재발방지 관련 보도 (5/22) 4. 누락본 복원한 토론회 영상 재방송 편성 (5/22 20:40~21:35) 5. 시청자 사과 및 발생원인, 조치 사항에 대한 지역 언론사 보도 자료 배포 (5/22) <26. 5월 조치>	'26.5월
총 건수		5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https://tjmbc.co.kr/MinutesOfTheMeeting>)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 고 (총 선임기간)
위원장	김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변 동 사 항					
위원	조정현	대전위캔센터장	대전YWCA	여성단체	신임 26.5.1~28.4.30
위원	박지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신임 26.5.1~28.4.30
위원	김혜영	대전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인권단체	신임 26.5.1~28.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임기만료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정경다리 회장	재능나눔 정경다리	청소년단체	임기만료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임기만료 24.5.1~26.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 용어 선택 관련> 충남 교육청 초등생 무면허 운전 관련 된 대책 마련' 보도시 위기 아동들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을 언급했는데 '관리대상'이라는 용어보다 '종합대책' 등으로 풀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음	가출이나 장기결석 중인 위기 아동들을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보도가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 보도 자료가 배포됐다 하더라도 일부 아동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할 기율이겠습니다.	○		
보도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 관련>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이나 허무맹랑한 공약들이 체크돼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아쉬움. 예컨대 이미 다른 4개구에는 가족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후보는 대전에서 유성구에 제일먼저 가족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말했는데 이런 건 보도할 때 바로 잡아줘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선거를 앞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여야 후보의 행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이 검증 없이 보도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함. 선거 관련 보도에서 후보의 발언이라도 이번 사례처럼 '전혀 없다', '최초로 만들겠다'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있다면 검증 후 보도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보도	<선거 시기 사법 제도 남용 관련> 선거때 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취하를 하는 상황임. 수사기관의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는데 이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으면 함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점에 대해서는 선거 직전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미 보도를 했음. 선거 이후에도 관련한 보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학교 급식노동자 관련 보도> 학교 조리 실무자들의 파업내용을 전하면서 파업에 대한 핵심내용이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음. '학교 급식 비정규직 조리 실무사 파업'으로 용어가 정정되어야 하고 방학에 임금이 나오지 않아 생계가 위협받는 부분도 반영되면 좋겠음. 향후 쟁점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협상과정이 담겼으면 좋겠음.	지난해부터 급식 비정규직 파업 관련해서 타 방송사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전달해왔고, 방학 중 임금 미지급 등도 기존 관련 리포트에서 담은 바 있음. 말씀하신 당일 뉴스는 30초 안팎 길이의 단신 뉴스이다 보니 구체적인 쟁점 등을 자세히 담지는 못했음. 앞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음.	○		
보도	<전국뉴스, 로컬뉴스 영상중복 관련> 5월 15일과 20일에 저녁뉴스와 로컬뉴스에서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방송된 게 있는데 15일 스승의 날 미담기사는 같은 주제였지만 다른 장면들이 나와서 좋았음. 이런 식으로 다시 편집해서 방송해주길 바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뉴스 출고본과 전국 뉴스 출고본 2개를 각각 편집해 방송하지만, 뉴스 시간에 임박해 출고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편집 시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같은 뉴스를 방송하고 있음. 되도록이면 다르게 편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여론조사 보도 관련> MBC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선거구는 조사 시기, 조사 방식, 조사 대상 등 조사 개요에 대한 안내 화면이 나왔지만 어떤 선거구에는 조사개요 대한 안내 자막이 나오지 않았음. 누락되었다면 안내 부분	여론조사 개요를 모든 개별 뉴스에 붙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같은 날 동시에 여론조사 리포트가 2~3개씩 나가는 경우에는 마지막 리포트에 여론조사 개요를 넣고 있음. 하지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개별 뉴스 클립으로 업로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 필요할 것 같음	드하는 경우에, 모든 기사 뒷부분에 여론조사 개요를 안내하고 있음.			
보도	<팩트체크 코너 관련> 이전에 ‘뉴스참’이라는 팩트체크 코너를 운영해 왔는데 선거 시기에 이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음. 사실 검증을 다루는 보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지난해 보도한 ‘뉴스참’ 팩트 체크 뉴스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올해도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않아서 같은 형태의 보도는 예정돼 있지 않음. 하지만 팩트 체크 형식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증 보도에 나설 계획임.	○		
보도	<후보자토론회 방송사고 관련>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줄길 바람. 토론회 방송사고 후 조치 사항들을 들어보니 자막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은 없다는 것에 공감함.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끝까지 신경써주기 바람. 생방송이 아니라서 중간에 자막 정도는 편집이 가능할 텐데 굳이 다시 촬영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함.	일반 프로그램의 경우 녹화만 진행한 뒤 사후 자막 편집을 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나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가급적 편집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토론 녹화 당시에 자막과 초시계 등을 모두 생방송처럼 녹화해서 방송하고 있음. 이번 사안의 경우, 잘못 들어간 자막이 이를 자막이었고 다른 자막으로 덮는 사후 편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녹화 중지 후 오류 발생 부분부터 재녹화를 진행했으나 편집 없는 선거방송 녹화의 기본원칙에 대한 고려와 고민이 더 필요했다고 사료됨.	○		
보도 (시청자 불만)	<토론회 방송사고 후속조치 관련>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한 편파 방송이라는 불만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의견 (5/22-24, 총 25건)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위원회 석상에서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방송 사고와 관련한 사고 개요 및 아래 조치사항을 설명함. <조치사항> 1. 보도국장 경질 (5/22) 2. 뉴스데스크 시작시 앵커멘트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5/22) 3. 뉴스데스크에 사고개요 및 재발방지 관련 보도 (5/22) 4. 누락본 복원한 토론회 영상 재방송 편성 (5/22 20:40~21:35) 5. 시청자 사과 및 발생원인, 조치 사항에 대한 지역 언론사 보도 자료 배포 (5/22)	○		
교양	<교양 프로그램 관련> 단순한 소개형 콘텐츠를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확장됐으면 좋겠고, 지역의 사람, 공간, 문화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하면서 더 나아가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변화와 고민까지 함께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주길 바람	<테마기행>길 중구편을 보고 ‘보문산 전망대에 다시 올라갔다’,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 등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 앞으로 그 지역이나 원도심이 안고 있는 아쉬움이나 소외계층이 바라는 점까지 간접적으로 잘 다루도록 하겠음.	○		
교양	<대충봐도 꿀잼 이거봤슈 관련> 지역의 단신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대충봐도 꿀잼’은 1차적으로 지자체 영상이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집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전체 프로그램만 보여서 쏘풍으로 편집해서 올려주면 지역사회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음.	다양한 소식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음. <오늘M>에 괜찮은 콘텐츠들이 많은데 유튜브 쇼츠에 올랄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음.			
교양	<오늘M 구성 관련> <오늘M>의 구성이 반복되는 인상을 받음. 리포터가 현장을 소개하고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인데 지역 주민들을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현장감과 공감도를 살렸으면 함	<오늘M> 구성과 관련해서 참여형, 공감형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하겠음.	○		
교양	<출연자의 복장과 안전 관련> <인생내컷> 정원 디자이너 편에서 조경을 하는 장면이 방영됐는데 출연자가 같은 복장으로 일을 하던데 장비 등이 동원될 때는 관련법상 안내문 고지나 복장을 갖추고 촬영한다면 더 리얼한 프로그램으로 보일 것 같음.	<인생내컷>은 보통 4일 정도 촬영을 나가는데 출연자가 같은 복장을 입어서 그럴 수 있음. 안전 장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촬영하도록 하겠음.	○		
교양	<유튜브 채널 콘텐츠 관련> 대전MBC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한 화이글스 야구 콘텐츠의 비중이 높은 걸로 보임. 동네소식이나 생활밀착형 콘텐츠들도 짧게 편집해서 올려주길 바람.	야구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은 타당함. 현재 편집 인력 등의 부족으로 야구 이외에 다른 지역 콘텐츠 업로드가 부족한 상황인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타 분야 콘텐츠를 늘리고, 6월 말 편집 인력이 보강될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이슈토크 코너 관련> 5월 14일 주식 이슈토크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표현이 강하다고 느꼈음. 또한 주식 관련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래픽이나 자막으로 설명해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음	이슈토크 콘텐츠 제작 시 안정적인 표현 대신 중립적인 표현을 쓰도록 노력하겠고, 주식 등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에서는 구독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자막이나 그래픽의 활용을 늘리도록 하겠음.	○		
교양	<오늘M 초대석 관련> <오늘M> 초대석 출연한 충남선관위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서 충남지역만이 아닌 대전세종까지 아우르는 질문이나 답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오늘M> 초대석은 자체적으로 섭외하는데 충남선관위 같은 경우는 당시 저희와 협업하는 일이 있어서 출연하게 된 것임. 향후에는 다양하게 출연하도록 보완하겠음.	○		

2026년 5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6년 5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백강희 부위원장,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조정현 위원, 박지현 위원, 김혜영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재우 경영국장

지금부터 5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덟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욱 위원장님께서서는 부득이한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는데요. 잠시 후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 접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시청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께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리고 질문이 있을 시 이야기를 나누고 본회의에 들어가는데요. 5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26건입니다. 토론회 관련 내용 불만 25건, 기타 문의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됩니다. 토론회 방송 사고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도국장이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취재부장이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뉴스데스크 방송 실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주신 내용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단체 카톡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필요시 다음 달 회의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는 세 분의 위원님들을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충남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 방송 사고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대표이신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의 잘못입니다.

사고 이후 여러 후속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만 그 어떠한 후속 조치도 사고 그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대전MBC의 이름이 단 한차례의 사고로 깊은 신뢰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향후 신뢰성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와 사규에 따른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평소 저희에게 고견을 아끼지 않으셨던 시청자위원회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경영국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배포해 드린 후보자 토론회의 사고 개요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던 프로그램의 명칭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내부 타이틀로는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인데요. 토론회는 두 가지 종류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이고 다른 하나는 대전MBC가 자체로 주관하는 토론회인데 이 토론회는 대전MBC가 자체로 주관하는 토론회였습니다. 방송일시는 26년 5월 21일 저녁 9시 5분부터 55분간 방송됐고, 사고 내용은 토론회 진행 순서 중에 ‘모두 발언’이 있는데 그 코너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 발언 1분 전체가 누락됐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막 오류 및 진행자의 오류 설명 영상이 포함된 녹화분을 그대로 방송하기가 불가능해서 선거방송 토론회 제작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류 수정을 위해서 편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편집에 임했던 편집자의 착오로 인해서 모두 발언이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1 파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민주당 후보자와 국민의힘 후보자 두 명이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진행 순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막이 ‘민주당 박수현 후보’로 잘못 들어가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토론을 중단하고 양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녹화에 임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후보님 말씀 중 잘못된 것은 없는데 안에서 자막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라고 방송 진행자가 현장에서 두 분 후보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보다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오렌지색 점선으로 표시된 김태흠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이 ‘공약 발표’ 부분에서 자막이 잘못 표기된 영상만 편집해서 제거하면 문제없이 박수현 후보의 ‘모두 발언’ -> 김태흠 후보의 ‘모두 발언’ -> 김태흠 후보의 ‘공약 발표’ -> 박수현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로 이어질 텐데요. 편집자가 실수로 자막 오류가 발생한 김태흠 후보의 ‘공약 발표’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 발언’ 영상까지 함께 편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태흠 후보의 ‘모두 발언’은 빠지고 바로 ‘공약 발표’로 넘어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명백한 오류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방송이 5월 21일 오후 9시 5분에 방송됐는데 그날 저녁부터 바로 대책 회의를 했고 그 결과 보도국장을 경질하고 5월 22일 로컬 <뉴스데스크>를 시작할 때 앵커 멘트로 방송 사고에 대한 시청자 및 관계자에 대한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로 누락 사유 및 과정, 재발 방지에 대한 보도를 당일에 진행했습니다.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해서 정상적으로 편집한 방송분을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방송사에서는 가장 좋은 시간대에 해당하는 8시 40분부터 55분간 재방송을 시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나 언론사에 시청자 사과 및 발생 원인과 조치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토론회 사건 개요 및 조치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마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옥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지난 한 달간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시간에 프로그램 모니터링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재우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지난 한 달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위원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조원희 위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조원희 위원

대전MBC에서 제작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지역 프로그램들을 관심 있게 시청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내컷>과 <테마기행 길>은 지역 사람

들과 공간 그리고 문화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들을 보면 단순한 맛집 소개라든가 관광지 소개를 넘어서 지역의 오래된 공간과 삶의 흔적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향성이 잘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테마기행 길>에서 소개된 대전의 원도심 이야기라든가 대청호 미식여행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관광 정보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생활 문화까지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또한 <인생내컷>에서 음악카페 운영자, 약선요리 연구가 등 지역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담아낸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성공담보다는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삶의 분위기를 담아낸 점이 지역 방송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소개형 콘텐츠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을 다룬다면 감성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상권의 변화가 어땠는지, 청년의 유입 문제 그리고 공간의 보존 문제까지 연결해서 보여준다면 지역민들이 조금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역의 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소개할 때도 인물 소개를 넘어서 현재 지역 경제나 문화 생태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까지 함께 담아낸다면 프로그램의 깊이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방송 흐름을 보면 MBC가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지역의 감성과 정체성을 담아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사람, 공간, 문화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변화와 고민까지 함께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주길 기대합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승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공영방송의 무게감만큼이나 시청자위원으로서 며칠 편치 않은 날을 보냈는데요.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M>에서 '대충봐도 꿀잼 이거봤슈?'에 대해 지난번에도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움니버스 형식으로 우리 지역의 단신들을 잘 알려주는 코너로서 부담 없이 즐겁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편집해

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로 검색해 봤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고 전체 프로그램에서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그 부분을 잘라서 단신이나 쏫폼으로 편집해서 올려주면 지역사회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스데스크>인데요. 5월 22일 ‘충남 교육청 초등생 무면허 운전 관련된 대책 마련’ 보도 중 끝부분 멘트에서 학교 전담경찰관이나 전담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개도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출이나 장기결석 중인 위기 아동들을 조사하여 집중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기 학생들이 문제 행동이 가능한 학생이라고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 관리 대상, 조사 대상이라고 보도 자료가 배포됐다 하더라도 종합 대책 혹은 지원이라든지 회복, 예방책 등 완화해서 앵커 멘트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5일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는데 4년 내내 비가 오다가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아이들한테는 행복한 날이었고, 또 선거와 맞물려서 아이들 행사에 어른들이 색깔 있는 잠바를 입고 활동하는 게 맞나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복지하겠다’, ‘개발하겠다’, ‘특수 구역을 만들겠다’ 등의 구호를 얘기하지만 실제 아동 청소년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없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선거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 후보별로 보면 그냥 두루뭉술한 공약들은 많지만 실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동원하겠다는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아마 재선이라든지 3선을 가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했던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하겠다’, ‘이런 게 없다’고 자책하는 느낌의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 같아서 검증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나 허무맹랑한 공약, 또 우리 지역에 검증되지 않은 타 지역의 사례들을 무작위로 공약에 넣는 부분도 체크돼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날 인터뷰 영상에서 모 후보가 “대전에는 가족센터가 없다”, “유성에서 제일 먼저 가족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에는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검증해서 한 번 정도 걸러주지 않으면 그대로 전파됩니다. 실제 거기에 종사자도 있고 이용자들도 있는데 우리 구역은 없나? 하고 저도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약 하나하나가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앵커의 멘트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 선거권은 없다 하더라도 소외계층, 취약계층 들에게 그 분들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공약에 대해 계속해서 잘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다음은 박은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개요와 조치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원본 전체 공개 영상을 살펴봤는데, 사실상 자막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고의성은 없다는 것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선거 방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문제는 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세심하게 끝까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을 볼 때 백월의 해상도가 좋아서 상당히 시청하기 좋았습니다. 토론자들의 해상도도 좋아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고요.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 깜빡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시시각각>이나 보도에서 교육감 관련 보도들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MBC가 적극 수용하고 반영해서 시청자들에게 더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위원회 때 <인생내컷>이 5월부터 전주MBC와 공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약선요리 연구가 조현주님 방영분은 전주MBC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주는 맛의 고장이라고도 하는데 전주를 어필할 수 있는 요리로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선요리는 낯선 단어인데 식품과 약초를 배합한 요리를 소개하면서 건강한 요리와 건강한 웃음을 주는 프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로그램 내용 중에 철든 음식, 철부지 음식 나눌 수 있다는 표현들도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한 전주 10미 음식이라고 해서 전주에서 많이 나는 재료들을 활용한 음식들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대전에 새롭게 지정된 음식들이나 대전 10미들도 함께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비교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내컷>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확장돼서 다양하고 건강한 삶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간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봤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다음은 문선훤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선훤 위원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방송 사고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질문과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도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생방송이 아니었고 촬영 시점부터 방영 시점

까지 시간이 있어서 자막 정도는 그 사이에 편집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다시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건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잘 작성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사과문의 내용에 삭제된 ‘모두 발언’이 포함된 토론회 영상이 유튜브에 탑재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MBC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결국 못 찾았는데요. 사과문에 그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시든 아니면 대전MBC 유튜브에 들어가면 상단에 시청자본들이 찾아보기 쉽게 당분간은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법조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슈가 되면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면 그게 뉴스로 재생산이 되는 것을 노렸다가 선거가 지나면 대부분 취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아도 수사 기관의 업무가 과중해서 일반 시민들의 형사 사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행정적 낭비를 부추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공직 선거에서 사법 제도가 남용되는 것에 대한 탐사 보도나 조명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전MBC에서 방영하는 내용 중에 젊은 세대로서 가장 공감하는 콘텐츠는 유튜브에 있는 ‘이슈탭’인데요. 가장 핫한 이슈를 재기발랄하게 담아줘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주식 투자 관련 내용이나 늑구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감각적으로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지역 방송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이슈탭을 대전MBC에서 꾸준히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오늘M> 5월분을 집중적으로 시청했는데 지역 곳곳의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생활 현장을 꾸준히 소개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려는 취지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니까 코너 구성 흐름이 반복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리포터가 현장 소개하고 이후에 스튜디오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 안정감 있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최근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 소비 흐름과 비교하면 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실제 주민들의 생생한 반응과 참여, 현장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시청자들이 더 몰입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포터 중심의 진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청년, 상인, 가족 단위 시민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이 들어간다면 프로그램 현장감이나 공감도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코너별 구성이나 전달 방식이 더 짧고 리듬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세대별로 관심 있는 편집 요소가 반영 된다면 다양한 연령층이 보다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방송이 지역의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낸다는 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참여형, 공감형 콘텐츠로 확장한다면 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승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5월 2일에 모 후보가 가족센터가 없다고 했던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발언을 했던 후보님은 가족센터가 있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전에 가족센터 운영 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가족센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순간 당황해서 부각시킨다는 게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보도할 때 정정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다음은 박지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지현 위원
저는 <인생내컷> 프로그램 애청자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 40분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지역 시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하고 싶고 따라 해보고 싶게 해주는 휴먼 다큐라서 매주 애청하고 있습니다.

정원 디자이너 문광현 편에서는 그분이 평생 직업을 만나게 된 과정이나 정원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일과 정원 생태계를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치유 과정 등을 세세하게 방영해 주셔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또 시민 정원사 아카데미 과정까지 소개해 주면서 아마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메모도 해보고 이후에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람의 일과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공감과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촬영하는 날이 하루였는지 같은 복장으로 인터뷰와 조경하는 일이 방영되더라고요. 정원 관리나 조경 일은 현장 관리에서 안전적인 측면이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촬영할 때 더 현실감이 있으려면 복장이나 장비를 갖추고 일하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크레인이나 장비가 동원될 때는 안전관련 법상 그 앞에 안내문이나 복장을 갖추는 게 더 리얼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인생내컷> 애청자로서 앞으로 지역 젊은 세대의 인생 도전에 대한 부분도 방영되

면 좋겠습니다.

<뉴스데스크> 5월 18일 방송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 즉 조리 실무사들의 파업 내용을 전했는데요. 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다 보니 조리 실무사들의 파업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과 자율 연수 제도 도입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협상의 쟁점에 대한 취재보다는 파업으로 아이들이 점심을 못 먹게 되는 현상 측면만 부각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 파업’이라는 제목보다는 ‘학교 급식 비정규직 조리사 파업’ 또는 ‘학교 급식 비정규직 조리 실무사 파업’으로 용어를 적절하게 정정하여 방영됐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정규직은 방학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방학에 임금이 나오질 않아서 실제 생계가 위협되는 면이 있다는 부분들도 함께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사 방송을 살펴보니 쟁점 중심으로 방송했습니다. ‘같은 조리사인데 왜 차별?’ 내용으로 무엇을 방송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청자의 눈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대전MBC에서도 쟁점 중심으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 과정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5월 15일과 20일에 전국 <뉴스데스크>와 로컬 <뉴스데스크>에 같은 내용으로 중앙과 로컬이 똑같이 방영되는 게 있었습니다. 15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편집해서 시청자로서 이렇게 방송되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스승의 날 기획 방송으로 ‘틀려도 괜찮아’라는 선생님의 편지 이야기였습니다. 스승의 날 미담 기사로 전국 방송에도 나왔고 지역에도 나왔는데 같은 영상이 나오면 시청자들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날 방송은 인터뷰 내용에서 다른 장면들이 나오면서 같은 주제로 방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보와 영상들이 전달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20일이나 그 전에 녹구 탈출 같은 보도는 몇 차례 로컬 <뉴스데스크> 편집 내용이 중앙하고 똑같이 나와서 지역 뉴스데스크를 열심히 시청하는 애청자로서 다른 영상이나 각도로 다시 편집돼 전달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앙에도 나왔지만 로컬 방송에는 이런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구나하는 형식으로 편집되면 좋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다음은 조정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현 위원

요즘은 TV시청보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문선혜 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사과 방송조차 찾을 수 없고, 대전MBC에 들어가면 한화이글스가 전부인가 싶을 정도로 야구 콘텐츠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희수가 잘 나와서 그런 건지 지역 콘텐츠 중에서 짧게 만든 영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야구 관련 스포츠 콘텐츠의 비중이 큰 걸로 보였습니다. 실시간 현장 중계나 ‘오늘 경기 어땠어?’만 계속해서 보이는 게 아쉬웠습니다. <오늘M>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동네 소식이나 생활 밀착형 콘텐츠들도 짧게 편집해서 쇼츠나 릴스로도 올릴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짧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슈탭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5월 14일에 업로드된 주식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으로 ‘주식 안 하면 바보’, ‘안전한 적금을 떠올렸다면 바보 소리 듣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표현이 조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적금이나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시청자마다 투자에 관한 생각과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인 표현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는 청년이나 주부, 여성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주식 관련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래픽이나 자막으로 처리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M> 5월 21일에 방송됐던 ‘대충봐도 꿀잼! 이거봤슈?’ 코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지역 홍보 영상이나 투표 독려 영상, 익숙한 장소와 시민들이 나오는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인터뷰 중에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 인터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M>이 대전세종충남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니 충남에만 집중되지 않고 대전세종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이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세 분의 신임 위원님 모두 자칫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주신 점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저는 선거 관련된 보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았습니다. 민심을 읽는다는 취지로 MBC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선거구에 대해서는 조사 개요에 대한 화면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조사 시기나 조사 방식, 조사 대상에 대한 내용이 화면 마지막에 나왔지만 서구나 동구청장 선거에는 설문조사 개요에 대한 자막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웹사이트에서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공주 부여 청양 보령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설문조사 개요에 대한 화면이 안내가 되었는데 다른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화면이 누락되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데요. 특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오늘이 투표 날이라면 어느 후보를 지지 하는가 등 이런 투표 의향을 묻는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시기에는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보

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보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민심을 읽는다는 목적이라면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고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MBC에서 ‘뉴스참’이라는 팩트 체크 코너를 열심히 운영해 오셨는데 선거 맥락에서 이 ‘뉴스참’이 훨씬 더 빛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에 팩트 체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언론의 사실 검증을 다루는 보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데스크> 스승의 날 보도와 관련해 케이크와 체험 학습도 사라졌지만 쪽지에 담긴 선생님의 진심 관련 보도는 저도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체험 학습 문제 등 여러 갈등 이슈가 반복적으로 보도됐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제 간의 따뜻한 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미담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다음은 회사측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국부터 말씀해 주시죠.

임세혁 편성국장
<인생내컷>, <테마기행 길>, <오늘M>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은숙 위원님께서 휴먼 다큐<인생내컷>에 전주MBC가 합류해서 좋고, 약선음식 소개되는 편 말씀하셨는데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정보 제공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래 대전MBC와 MBC충북 2개사가 만들다가 5월부터 전주MBC가 합류해서 3곳에서 방송 제작을 합니다. 방송은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강원권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음식뿐만 아니라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다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소중한 공동 제작사인 것 같습니다.

조원희 위원님께서 <테마기행 길> 대전 중구 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보문산 전망대에 다시 올라갔다’, ‘칼국수 먹으러 갔다’ 등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작진에게 전달해서 그 지역이나 지역 원도심이 안고 있는 아쉬운 점이라든지 소외계층이 바라는 게 있다면 그런 점까지 간접적으로라도 다뤄서 더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충봐도 꿀잼! 이거 봤슈?’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요. 지자체에서 만든 창작 영상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자체에 공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영상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소식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잘 편집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오늘M>과 관련해서 참여형, 공감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관련 의견도 제작진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지현 위원님께서 <인생내컷>에서 복장과 안전 장비 말씀하셨는데요. <인생내컷> 촬영은 4일 정도 나가는데요. 아마 그날 복장이 같았던 건 그 분이 똑같은 옷을 입어서 공교롭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장비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시청자들께서 거슬리지 않도록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선관위 초대석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M> 초대석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출연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전MBC와 관계가 있는 단체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선관위는 저희 회사와 일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날 초대석으로 모셨는데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을 모실 수 없어서 관계있는 분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다양하게 출연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M> 콘텐츠들이 괜찮은 게 많은데 유튜브 쇼츠에 많이 못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점도 유튜브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유튜브 전담 부서가 선거 관련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편성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보도국과 관련된 의견은 보도국에 전달해서 답변을 받은 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회의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최승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초등학교 운전 관련한 집중 관리 대상이라는 강한 용어 사용에 대해 순화하거나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 필요성,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후보별 공약 부재나 검증의 필요성,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 해 주신 유성구 가족센터에 대한 팩트 체크 필요성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뉴스 백월에 대해서 좋은 평가 내려주신 점과 깜깜이 교육감 선거도 보도에 잘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칭찬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문선혜 위원님께서 선거철 고소 남발 상황에 대한 다른 생각과, 이슈탭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조정현 위원님께서 주시 관련해서 일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 등도 전달하겠습니다.

박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관련 보도에서 학교 급식 비정규직 조리실무사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도 보도국에 전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스승의 날 기획 보도에 대한 좋은 평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튜브에 생활 밀착형 콘텐츠 관련 내용들을 더 정리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시기와 방법 안내가 없는 보도가 있다는 말씀은 체크해 보도록 전달하겠고, 스승의 날 보도에 대한 따뜻한 말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방송 사고와 관련한 최승인 위원님, 박은숙 위원님, 문선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문선혜 위원님과 조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유튜브 ‘이슈 탭’ 말씀은 맥락이 같은데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사고에 대한 의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취재편집부장 <위원별 의견에 대한 보도국 답변을 받아 추가>
(최승인 위원 의견 관련)
가출이나 장기결석 중인 위기 아동들을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보도가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 보도 자료가 배포됐다 하더라도 일부 아동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선거를 앞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여야 후보의 행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이 검증 없이 보도된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관련 보도에서 후보의 발언이라도 이번 사례처럼 ‘전혀 없다’, ‘최초로 만들겠다’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있다면 검증 후 보도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선혜 위원 의견 관련)
일반 프로그램의 경우 녹화만 진행한 뒤 사후 자막 편집을 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나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가급적 편집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토론 녹화 당시에 자막과 초시계 등을 모두 생방송처럼 녹화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잘못 들어간 자막이 이름 자막이었고 다른 자막으로 덮는 사후 편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녹화 중지 후 오류 발생 부분부터 재녹화를 진행했으나 편집 없는 선거방송 녹화의 기본원칙에 대한 고려와 고민이 더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점에 대해서는 선거 직전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관련한 보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위원 의견 관련)
MBC가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급식 비정규직 파업 관련해서 타 방송사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전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학 중 임금

미지급 등도 기존 관련 리포트에서 담은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일 뉴스는 30초 안팎 길이의 단신 뉴스로 방송되다 보니 구체적인 쟁점 등을 자세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협상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 뉴스를 전국 뉴스로 방송할 때, 본사 전국부의 데스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뉴스 출고본과 전국 뉴스 출고본 2개를 각각 편집해 방송하지만, 뉴스 시간에 압박해 출고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편집 시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같은 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이면 다르게 편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 의견 관련)
야구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위원님 지적은 타당합니다. 현재 편집 인력 등의 부족으로 야구 이외에 다른 지역 콘텐츠 업로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타 분야 콘텐츠를 늘리고, 6월 말 인턴 등으로 편집 인력이 보강될 경우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슈탭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콘텐츠 제작 시 단정적인 표현 대신 중립적인 표현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주식 등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에서는 구독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자막이나 그래픽의 활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희 위원 의견 관련)
여론조사 개요를 모든 개별 뉴스에 붙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날 동시에 여론조사 리포트가 2~3개씩 나가는 경우에는 마지막 리포트에 기자 멘트와 여론조사 개요 그래픽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개별 뉴스 클립으로 업로드하는 경우에, 모든 기사 뒷부분에 여론조사 개요를 첨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도한 ‘뉴스참’ 팩트 체크 뉴스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아서 같은 형태의 보도는 예정돼 있지 않지만 팩트 체크 형식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증 보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의 마무리 인사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부득이하게 위원장님께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세 분의 위

원님들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합니다.

진종재 사장

선거 보도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양측의 주장과 사실들을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또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후보들의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공약 검증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도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겠지만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5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